

내년 복지부 예산 140조 돌파

11.4% 늘어 64조2416억원... 전체 3분의 1 넘어 기초생활보장 10조원 편성 등 맞춥 소득지원 확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지난해보다 11.4% 증가해 64조2416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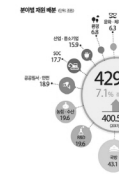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예산 총액 429조 원 중 복지부 예산이 143조 7197억 원으로 올해 대비 14.3% 늘었고, 기준은 25.9%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국외사업 등 전체 예산을 포함 예산이다. 특히 복지 예산이 지난해 47조 7464억원에서 올해 53조7538억원으로 12.9% 증가하고 보건복지부 예산은 22조 2381억 원으로 11.4% 증가한 8872억 원이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2015년 42조 2381억 원으로 11.4% 증가한 8872억 원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생활 안정·주요소득 지원'이라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건강보험, 복지서비스를 모두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2015년 42조 2381억 원으로 11.4% 증가한 8872억 원이다.



보건복지부 집행부 현황(단위: 천원)

보건복지부 예산은 2015년 42조 2381억 원으로 11.4% 증가한 8872억 원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생활 안정·주요소득 지원'이라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건강보험, 복지서비스를 모두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부 예산 총액 429조 원의 15.0% 수준이며, 정부 예산 내 복지예산 비중은 14.8%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총출입 규모는 지난해 57.66조에서 62조 64억 1147억 9600원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일자리 지원'을 올해 예산의 71%에 할당할 예정이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부 예산 총액 429조 원의 15.0% 수준이며, 정부 예산 내 복지예산 비중은 14.8%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총출입 규모는 지난해 57.66조에서 62조 64억 1147억 9600원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일자리 지원'을 올해 예산의 71%에 할당할 예정이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부 예산 총액 429조 원의 15.0% 수준이며, 정부 예산 내 복지예산 비중은 14.8%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총출입 규모는 지난해 57.66조에서 62조 64억 1147억 9600원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일자리 지원'을 올해 예산의 71%에 할당할 예정이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부 예산 총액 429조 원의 15.0% 수준이며, 정부 예산 내 복지예산 비중은 14.8%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총출입 규모는 지난해 57.66조에서 62조 64억 1147억 9600원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일자리 지원'을 올해 예산의 71%에 할당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46%, 지역인재 채용기준 미달

한국지리정보연구원 등 18곳 지난해 내 한명도 채용 안해

올해는 가까운 공공기관이 발달해 수도권 지역은 인력이 과잉 공급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수도권 외 지역은 인력 수요가 부족해 채용 기준 미달이 우려되고 있다.

12월 15일 정부위원회 소속 조사

한국지리정보연구원 등 18곳 지난해 내 한명도 채용 안해

올해는 가까운 공공기관이 발달해 수도권 지역은 인력이 과잉 공급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수도권 외 지역은 인력 수요가 부족해 채용 기준 미달이 우려되고 있다.

지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역인재 채용 기준 미달이 우려되고 있다.

올해는 가까운 공공기관이 발달해 수도권 지역은 인력이 과잉 공급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수도권 외 지역은 인력 수요가 부족해 채용 기준 미달이 우려되고 있다.

지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역인재 채용 기준 미달이 우려되고 있다.

올해는 가까운 공공기관이 발달해 수도권 지역은 인력이 과잉 공급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수도권 외 지역은 인력 수요가 부족해 채용 기준 미달이 우려되고 있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3명 김영란법 어겼다"

기업 소속 48명 대상 설문조사서 28% 어진 것으로 드러나

김영란법 위반 행위 및 기업 소속 인사담당자 10명 중 3명 어겼다

기업 소속 48명 대상 설문조사서 28% 어진 것으로 드러나

김영란법 위반 행위 및 기업 소속 인사담당자 10명 중 3명 어겼다

기업 소속 48명 대상 설문조사서 28% 어진 것으로 드러나

김영란법 위반 행위 및 기업 소속 인사담당자 10명 중 3명 어겼다

기업 소속 48명 대상 설문조사서 28% 어진 것으로 드러나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당정부 계획 수립 노 인가 20만원도 20만원으로 인상 결정

2018년 7월부터 10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정부 계획 수립 노 인가 20만원도 20만원으로 인상 결정

2018년 7월부터 10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정부 계획 수립 노 인가 20만원도 20만원으로 인상 결정

저출산 정책 '목표 효율성 떨어져'

저출산 대책은 10년 가계 부채 증가 11%로 늘어

저출산 대책은 10년 가계 부채 증가 11%로 늘어

저출산 대책은 10년 가계 부채 증가 11%로 늘어

저출산 대책은 10년 가계 부채 증가 11%로 늘어

저출산 대책은 10년 가계 부채 증가 11%로 늘어

2019년 1인 가구 대세...10년 새 2배 ↑

2026년엔 36.3%까지 올라 전국 가형대세 중 가장 큰 비중

2019년엔 36.3%까지 올라 전국 가형대세 중 가장 큰 비중

2026년엔 36.3%까지 올라 전국 가형대세 중 가장 큰 비중

2019년엔 36.3%까지 올라 전국 가형대세 중 가장 큰 비중

2026년엔 36.3%까지 올라 전국 가형대세 중 가장 큰 비중

2019년엔 36.3%까지 올라 전국 가형대세 중 가장 큰 비중

2026년엔 36.3%까지 올라 전국 가형대세 중 가장 큰 비중

나눔을 늘 행복해 집니다.

사회복지봉사단으로 참여 주세요!

- 봉사단 모집대상**
 - 1004지역사회봉사단 : 재능을 가지고 있는 봉사단체인 봉사자 4명 이상 활동 가능
 - 배이비이 봉사단 : 1959~1983년생의 특정 연령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인 2명 이상 활동 가능
- 봉사단 기준**
 - 5세 이상(VMS 기준)으로 구성되고 4명 이상 활동 가능 단체
- 봉사활동 분야**

- 지역사회봉사단 목적**
 -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국민복지증진
 - 전문봉사단인 취업을 통한 자생능력 신장 및 사회 복지
 - 사회복지자간·자생·단체 품의 육성을 통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
 - 전문성, 자생성을 갖춘 새로운 사회복지 자원봉사 체제인 구축
- 봉사단 혜택**
 - 활동비(재료비 및 활동용품 구입비) 일부 지원
 - 자한봉사활동 시간 인정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VMS, 복지자)
 - 참여가치증서 수여 및 소득세 제정권리 관리 및 보호
 - 봉사단체 소개
- 신청 및 문의**
 - 충청복지지역사회복지회 복지사업부 담당 부서 코디네이터
 - 연락처 043) 234-0840
 - 홈페이지 www.cwv.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파낙산재약(주) 어린이영양제 7억5천만원 상당 후원

영양제 860박스 충북사회복지회에 전달 지난 7월에도 어린이영양제 800박스 지원

14일 파낙산재약(주)에서 후원한 어린이영양제 860박스(750000원 상당)를 충북사회복지회 직원들이 전달했다. 이번 후원에는 860박스(750000원 상당)를 후원하는 파낙산재약(주)가 후원했다.

파낙산재약(주) 측은 "대리점에서는 지난 4월 후원제를 받은 후 소외 계층 아동들에게 전달해 어린이영양제 150박스(1500000원 상당)를 전달했다"며 "이번에도 후원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파낙산재약(주) 측은 "대리점에서는 어린이영양제 860박스를 후원해 어린이영양제 860박스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파낙산재약(주) 측은 "대리점에서는 어린이영양제 860박스를 후원해 어린이영양제 860박스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사무총장 박은기), 파낙산재약(주)대표이사 홍성민, 고 건태, 최윤민, 어린이영양제제출업체 총괄부도

내년 대상으로 하는 5년차 사업도 계속 사용자에게 배분 할 예정이다.



충주시 장애인단체(시멘트협회)가 지난 9월 22일~24일 3일간 센터를 이용하는 발달장애 장애인 20여명을 대상으로 출발전행대행했다.

"일상 벗어난 여행... 정말 좋아요"

충주시장애인단체(시멘트협회) 후원 발달장애 어린이 대상 2박 3일 여행행 대대

충주시장애인단체(시멘트협회)가 지난 9월 22~24일 3일간 센터를 이용하는 발달장애 장애인 2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5년차 사업도 계속 사용자에게 배분 할 예정이다.

충주시장애인단체(시멘트협회)가 지난 9월 22~24일 3일간 센터를 이용하는 발달장애 장애인 2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5년차 사업도 계속 사용자에게 배분 할 예정이다.

충주시장애인단체(시멘트협회)가 지난 9월 22~24일 3일간 센터를 이용하는 발달장애 장애인 2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5년차 사업도 계속 사용자에게 배분 할 예정이다.

충주시장애인단체(시멘트협회)가 지난 9월 22~24일 3일간 센터를 이용하는 발달장애 장애인 2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5년차 사업도 계속 사용자에게 배분 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군 공무원 교육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충청남도 공무원교육 실시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 공무원들은 지난 14일 충청남도 대천의에서 11개 시·군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 공무원들은 지난 14일 충청남도 대천의에서 11개 시·군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자살에 대한 고위 및 권역별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 시·군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에 대한 이해와 관련분야 정보의 전달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자살에 대한 고위 및 권역별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 시·군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에 대한 이해와 관련분야 정보의 전달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자살예방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살예방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살예방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살예방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살예방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살예방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과 '자전거 수학여행'

충주시청소년지원센터 공주 부여 여행 4박5일

충주시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14일 공주 부여 여행을 다녀왔다. 이번 여행에는 11개 시·군 청소년 100여명이 참가했다.

충주시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14일 공주 부여 여행을 다녀왔다. 이번 여행에는 11개 시·군 청소년 100여명이 참가했다.

충주시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14일 공주 부여 여행을 다녀왔다. 이번 여행에는 11개 시·군 청소년 100여명이 참가했다.

충주시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14일 공주 부여 여행을 다녀왔다. 이번 여행에는 11개 시·군 청소년 100여명이 참가했다.

충주시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14일 공주 부여 여행을 다녀왔다. 이번 여행에는 11개 시·군 청소년 100여명이 참가했다.

충주시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14일 공주 부여 여행을 다녀왔다. 이번 여행에는 11개 시·군 청소년 100여명이 참가했다.

충주시청소년지원센터 6일 보타미 캠프 실시

충주시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6일 보타미 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캠프에는 11개 시·군 청소년 100여명이 참가했다.

충주시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6일 보타미 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캠프에는 11개 시·군 청소년 100여명이 참가했다.

충주시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6일 보타미 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캠프에는 11개 시·군 청소년 100여명이 참가했다.

충주시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6일 보타미 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캠프에는 11개 시·군 청소년 100여명이 참가했다.

충주시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6일 보타미 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캠프에는 11개 시·군 청소년 100여명이 참가했다.

충주시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6일 보타미 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캠프에는 11개 시·군 청소년 100여명이 참가했다.



충북아동복지시설 초등부 배드민턴 우승

제19회 보타미대회 전국공부체육대회 폐기

충북아동복지시설 초등부 배드민턴 우승했다. 이번 대회에는 11개 시·군 초등부 학생들이 참가했다.

충북아동복지시설 초등부 배드민턴 우승했다. 이번 대회에는 11개 시·군 초등부 학생들이 참가했다.

충북아동복지시설 초등부 배드민턴 우승했다. 이번 대회에는 11개 시·군 초등부 학생들이 참가했다.

충북아동복지시설 초등부 배드민턴 우승했다. 이번 대회에는 11개 시·군 초등부 학생들이 참가했다.

충북아동복지시설 초등부 배드민턴 우승했다. 이번 대회에는 11개 시·군 초등부 학생들이 참가했다.

충북아동복지시설 초등부 배드민턴 우승했다. 이번 대회에는 11개 시·군 초등부 학생들이 참가했다.

돌봄종사자 건강권 지원사업 참여기관 및 참여자 모집

■ 돌봄종사자 건강권 지원사업이란?

충북도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대상으로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심리정서 프로그램, 피라미드 소모임 지원 프로그램, 돌봄종사자 네트워크 구성, 고충상담 및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충북도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대상으로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심리정서 프로그램, 피라미드 소모임 지원 프로그램, 돌봄종사자 네트워크 구성, 고충상담 및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1. 모집대상 - 충북도내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2. 모집기간 - 2017. 9. 1 ~ 2018. 8. 31
3. 사업목적 - 돌봄종사자의 건강과도 지속적인 업무부담을 위한 역량강화 및 건강권을 통한 인식개선 및 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4. 프로그램 형태

프로그램	집단상담	호스피스교육	미술치료	웃음치료	의사소통교육	소모임 개발 및 지원
정원/회기	17명/4회기	17명/4회기	8명/6회기	30명/1회기	30명/2회기	10명/9회기

5. 신청 및 문의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 팀장서 사회복지서 T. 043)234-0840

6. 지원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인 보람을 함께 나누다

제18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이모저모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지난 2000년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제18은 사회복지의 날로 정하고 이후 같은 목적에 적합한 행사와 사업을 위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한데 따라 매년 열고 있다



유공자 표창(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문호성)



사회복지사업 분석선언.



대회의 숲은 주역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



유공자 표창(충청북도의회위원장 표창)



식민유관.



유공자 표창(192건복지부장관 표창, 충청북도지사 표창)



유공자 표창(영동군수 표창)



유공자 표창(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유공자 표창(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차리를 가득 채워주신 여러분.

어머니가 아프신데...
어떻게 하지?

?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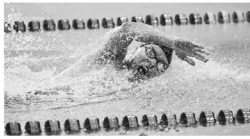
충북복지넷

- 복지서비스 검색
- 가까운 복지기관 찾기
- 복지기관 평가정보까지 한눈에

충북복지넷

www.043w.or.kr

검색창에 충북복지넷을 검색해보세요



지난 19일 부산 5일간 열린 제37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진은 전국 장애인 체전 경기 모습이다.

37번의 장애인 체전, 이번이 가장 빛났다

19회 이후 총합계로 일원에서 5일간 열리며 펼친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38인원 편파 리는 스포츠로 아예 장애인체전 역사상 최초로 전대체육대회 한 달서 열며 최태가 됐으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8529명 선수 383명, 임원 및 관계자 299명의 선수가 참가해 대회를 치렀다. 또한 39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사인 스포츠, 패션 콘서트,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대회의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탤에 있어 가장 가능해졌다. 종합 우승은 개천 지인 총계 (253,376,92점), 2위는 경기 (187,780,00점), 3위는 서울(159,857,186점)이 차지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요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 향상과 신체 기능 향상 및 사회적응을 위한, 전문 스포츠 개개를 통한 장애인 체육에 있어서는 사회복합(기)를 조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전 장애인에 있어서는 최초의 종합체육행사
장애인체육은 1991년 수업을 제정된 체육대회의 핵심 부문이었던 장애인 체육을 아우르며 되었으며,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마침내 열리게 되었다.

제37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성료

역대 최초로 전국체전보다 한 달 먼저 개최... 종합우승 총복 2위 경기 3위 서울 전국 17개 시·도서 8529명 참가 '최대 규모'... 자원봉사자 3900여명 '숨은 공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은 한국 장애인체육협회와 협조해, 대입 및 대회(군정)를 주관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함께 장애인체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장애인체육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최초로 열렸다.

장애인체육대회의 시작
1981년 제1회 대회는 한국장애인체육회와 개원후 2년째부터 4년째까지는 한국장애인체육회와 문화체육이 공동주최하여, 그 다음 1985년 발족한 서울장애인체육회(현 서울장애인체육회)의 설립으로 제1회 대회부터 1987년 제1회 대회를 열었다가 시작되었다.

그 후 한국장애인체육대회는 올림픽이 열린 1988년 한 해를 겨냥 것을 제외하고는 1989년부터 다듬어, 굳어져, 끝까지 라는

승리를 위해 제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주부 주부 큰으로 운영되고, 제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제2회 대회 이후 서울과 경기 도 일원에만 지속적으로 개최되면서 지방의 선수들의 참여가 줄어들었고, 선수층 및 경기력이 국내에서 한계로 달린한 점이 지적되어왔다. 또한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두루 행사 가 발전하여 국민의 관심을 끌기 가 어렵고 장애인체육에 대한 홍보효과가 적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장애인체육대의 순회 개최를 위한 노력
도시나 수도권 지역의 경우 장애인 체육의 발전과 장애인 체육의 시·도 간 균형편을 도모하며, 장애인체육의 발전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장애인체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역사적인 순회개회가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1995년 1월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려 도·선 수준인 양으로 지방순회개회 권의시행 보전복지부에서 제안했으며, 1995년 12월 국민체육진흥(의)보조사업에 전국장애인체육대의 순회 개최계획을 포함하였고, 1996년 3월 노인장애인복지 협의회, 추진위원회(의)보조사업으로, 1996년 서울 전국장애인체육대의 순회개회(의)에 대한 시·도 의결(의)보조사업으로, 1997년 12월 장애인복지법 5개년계획에 순회개회계획 구제(의)2000년부터 실시, 1999년 2월 국무회의 국무조정실 복지심의관과 전국장애인체육 지원 순회개회 방안(의)2000년부터 실시, 2001년 11월(의)보조사업으로, 1999년 12월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양민 사회복지(의)보조사업(의)를 거쳐, 1999년 5월 제1회 체전 개최(의)에 최선인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순회개회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

장애인체육대의 순회 개최

인원(의)에서 제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이후 지방광역시 시·도별 순회 개최를 위하여 제2회, 제23회 대회는 제1회 부산이 태어난 경기도에서 개최된 것이 없었고, 제23회 대회는 충청남도에서, 제24회는 전라남도에서, 제25회는 충청북도에서, 제26회 대회는 울산에서 제27회 대회는 경북에서 개최되었다.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무릎법률홍담터 사업 안내

법률홍담터제도는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법교육, 구호지원과 법률복지사업 등 소수인원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법호사의 자금을 갖춘 법호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홍담터"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복지 시도가 어려운 취약계층,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제공대상

근로복지 및 임금, 채권 및 채무, 상속 및 유산, 이혼, 전권,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생활민원 관련입니다.

서비스 신청은

시·군·읍·면·동 104서무부 또는 5차지킴이(공공지원 센터)
 ☎ : 043-298-0843 / 이메일 : wms729@naver.com
 사무처 : 양서동 1층 구도민회 2층 사회복지복지센터 300호 법률홍담터

법무부 · **충청북도** · **SSN 충청북도시외복지지원회**

